

“무문관 수행한다 생각하세요”

희망법당 군산 교도소 적멸보궁

80평 남짓한 군산교도소 법당 적멸보궁. '지심참회' '조기출소' '부모님 극락왕생'... 제각각 사연을 담은 연등 아래에서 한 재소자가 108참회를 한다.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음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한 재소자는 참회진언을 외고 있었다. 법을 어기며 살았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다.

"어리석은 자식을 위해 건강하게 출소할 날만을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참회하며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일 뿐입니다."

재소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는 매주 수요일 군산교도소 법당에서 참회기도를 해 왔다.

매주 수요일은 군산교도소 적멸보궁에서 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매주 70여 재소자들이 법당을 찾는다.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제외하면 제법 많은 참여율이다. 재소자 대부분이 법당을 찾게 되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그들은 변화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기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하루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겠다고 노력한다.

군산교도소 법당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내원암 자인 스님이 재소자 교정교화사업에 기틀을 잡았다. 이제는 동국사 종결 스님이 뒤를 이어 교정교화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선운사 스님들과 은적사 성우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이 순번을 정해 법회를 연다.

종결 스님은 처음 법당을 찾은 재소자들을 소개하고, 재소자에게 참회정진을 당부했다.

"교도소에서 자신만의 무문관 수행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참회기도를 하십시오."

종결 스님은 법문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 각각의 방에 돌아가서도 법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스님의 배려다. 스님은 재소자들이 필요로 하는 불서를 차입해 주곤 한다. 법회가 끝난 후 상담시간. 불자재소자 중 몇 사람이 스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불교반에 범오집이 부족합니다.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불자들이 불서를 읽었으면 합니다. 책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결 스님은 재소자들의 요청을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는 요청을 흔쾌히 승낙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살 우려자나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재소자들과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불자 재소자와의 자매결연, 출소 예정자의 사회체현, 불교용품 지원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반장을 맡고 있는 무상거사는



군산교도소 법당 적멸보궁에서는 매주 수요일 70여 재소자가 참가한 가운데 법회가 열린다.

지역 스님들 순번 정해 매주 재소자 교정교화사업 108참회·참회진언 수행... 건강한 사회인 준비

"종결 스님의 법문은 쉽고 이해하기 좋아 수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는 재소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스님의 원력은 군산교도소 교정인 불자모임 창설로 이어졌다. 군산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중 유일하게 불자모임이 없다. 종결 스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불자모임 '불심회'를 창설하고, 지도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스님은 이들에게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불심회 회원들은 회비 일부를 불자 재소자 중 장기 모범수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재소자들의 영치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가족들을 대신해 수행생활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재소자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인성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사회에 돌아가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결 스님... 발원문 경시대회 계획

종결 스님은 2004년 재활관 법회를 시작으로 지난 7년 동안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그동안 140여 회에 이르는 법회를 진행했다. 법회 내용도 법회 때마다 다른 법문을 하는 것보다는 기초교리에 중점을 두고 알아듣기 쉬운 내용의 법회를 진행한다.

종결 스님은 생일법회나 교리, 발원문 경시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후원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이들이 출소 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른 불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군산교도소 적멸보궁 법당이 Happy 법당, 희망 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와 결혼할 남자는 심성이 반듯한 사람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픈거나 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안 데려갔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 그의 아버지는 월급을 폭력을 써서라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 관사에 들어가서 살아도 관사에 쳐들어갈 때리거나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구타하다가 직장상사에게도 주먹을 날리기도 했죠. 그러다보니 머리는 좋고 마음도 반듯하지만, 상처가 많아 정신과에 다니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모와 의절을 한 상태예요.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에도 걸핏하면 얼굴에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던 것을 보아 왔습니다. 부모싸움 하다가던 전화에 이마가 터지고 뭐 그런

A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둔 사람에게 감히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인연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숙연해집니다.

한 인간이 온전히 성인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이런 저런 유형무형의 환경적, 정신적, 유전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영향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은 개인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죽을 때까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를 만큼 중요한 요소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약혼자께서는 부모님을 반대교사로 삼고 반듯하게 자라셨으니, 참으로 훌륭한 인성을 지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다 잘

폭력 휘두르는 시댁이 두렵습니다 이겨낸다는 확신으로 고생 감내해야

식으로 형제가 있는데, 이쪽은 성격이 유순하고 체구도 작아서 때리는 아버지의 폭력을 그냥 받아냈습니다. 동생 쪽은 체구가 크고 성격이 부친을 닮아 난폭해서, 나중에는 부모와 동생이 합심해서 이 남자를 괴롭혀 왔습니다. 공무원이 돼 저와 가정을 꾸미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불우한 환경이지만 남자 심성이 반듯하고 직업도 확실하니 결혼해도 된다고 보고, 친아들처럼 아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를 붙잡아 길에서 두들겨 때려 내 아들 데려가는 값 3억을 내놓으라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새벽 2시에 저희 집 앞에 와서 "이 집 딸이 내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난동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병을 앓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저희 부모님께 폭력이라도 휘두르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걱정입니다.

부적이 있다던데(침을 떼거나 스토커를 떼거나 하는) 점집에 가서 그런 거라도 써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공부한다고 108배를 하거나 불경 듣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제 부모님한테 그 사람들이 때를 끼치거나 폭력을 휘두를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것은 그것을 받고, 거기에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인간살리의 길입니다.

약연이니 단번에 병문 끊어내고 싶지만, 그리 쉽고 단순하겠습니까?

예비 남편이 폭력의 대물림을 어떻게든 끊어야 한다는 바쁜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예비신부님의 친정을 걱정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그런 주변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고생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의 사랑과 가치관, 성격, 취향, 인생관 등 결혼을 위해 생각해야 할 덕목들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짝이라고 확신이 서신다면, 마음을 정돈하세요. 워낙 중요한 결혼을 앞둔 문제라 시원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료제공 : 불교상담개발원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엑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법법인 자비전화)

그 신비한 힘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자손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병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제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임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振)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동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져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기,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쳐서 두 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현상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로 돈의 흐름이 막히어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운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건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 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치우천왕 검색



신비한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치우천왕 조상천도 도자기 출현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치우천왕 도자기는 상품번호 제 40-0812033호 이므로 무단 복제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문화원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빙),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 2009년 3월 3일 (MBC-TV 특종 놀라운세상) 「귀신씨인 나무의 실제」편 출연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청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청봉사"를 클릭하세요.

청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